익산시, 추석 맞이 자활 장터 '풍성'

내달 11일, 문화 밥차와 함께 장터 열려… 장애인·저소득층·노인 자활 생산품 등 판매

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배산체육공원에서 '문화 밥차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자활·장애인·노인 생산품 판매 장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자활·장애인·노인 생산품 판매 장터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지역 자활단체와 장애인·노인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생산품의 판로를 마련한다는 데서 의미를 더한다.

실제 앞서 시는 5월 31일 열린 장터 행사에서 2,200만 원의 수익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추석 맞이 장터가 연계 상승효과를 내 이번 행사에서도 높은 수익을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익산지역자활센터와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실오라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참여한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익산 시니어클럽과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도 함께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직접 생산한 육포와 누룽지 등 추석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은 △재래구이 김 △참기름 △장아찌 △밑반찬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쌈채 △방향제 △천연비누 △로션 △호두과자 △김치류를, 자활기업 실오라기는 △천연 염색 스카프 △개량 한복 등을 판매한다.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는 △해썹(HACCP) 인증 국산콩 두부·순두부 △카드 지갑·파우치 등 가죽 공예제품을 판매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개발한 신메뉴 '두부쉐이크'도 맛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 전과 송편, 식혜 등 명절 음식을 마련했다. 시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300세대에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밥차에도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부식으로 전과 식혜 등 명절 음식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춘, 섬愛 잇다' 참가자 모집

제2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남녀 30명…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청춘, 섬愛잇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산시는 바쁜 일상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청춘 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진행된 1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청춘, 섬愛잇다'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진행되는 두 번째 만남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6월 첫 행사 참여자 접수 때는 총 30명(남 · 여 각 15명) 모집에 168명(남 145명, 여 2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또한 참가자 15커플(30명) 중 10커플(20명)이 탄생, 67%의 매칭률로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산시는 지난 행사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제2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청춘, 섬愛잇다'는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에서 1:1 스피드 데이팅, 포토미션, 선유도 액티비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썸 매칭지에 작성(1~3지망)하면 행사는 종료된다.

최종 커플 대상자는 추후에 통보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민 또는 군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39세(1985년생~1997년생) 미혼남녀이다. 접수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춘 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인 이번 행사가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과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확인하거나 인구대응담당관(☎063-454-2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재확산, 5대 예방수칙 준수"

질병청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6배 증가'

폭염과 함께 찾아온 코로나19의 재유행 조짐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군산시가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4주간 전국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또한 표본감시를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예방수칙 홍보활동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를 비롯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금강미래체험관, 도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큰 호응'

기후변화 주제로 매년 두 차례 실시

기후변화 체험과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은 매년 두 차례 실시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난 2021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올해까지 매년 두 차례씩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교원연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도교육청 직속 연수기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교원연수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지정해주고 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타 기관에서 다루기 힘든 기후변화 및 환경을 주제로 한 교과연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왔다.

이번에도 '더불어 사는 지구'라는 주제로 중등(8월 5~7일)과 초등(8월 12~14일)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내·외부 강사를 통해 △학교 중심의 초 · 중등 환경 프로젝트 수업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 △체험관 방문형 교육 체험 등 짜임새 있게 이뤄져 참여 교사들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고군산군도 트레킹'과 '선유도 흰발농게 서식지 탐방', 기후변화와 환경의 영향으로 변해가는 '고군산군도 알아보기'는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금강미래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은 학교와 체험관을 방문하는 현장 체험형 환경 프로젝트 수업의 모범사례로 매년 교육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기관 현장체험학습 유치 시동

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연수생 100여명, 관광지 현장 답사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받는 유치원 교사 100여 명이 13일 익산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필두로 교도소 세트장, 용안생태습지 등 교육과 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현장학습 장소로 익산의 장점을 설명하고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를 추진해 왔다. 연간 교사 약 9만 명이 연수를 받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익산교육지원청 등을 방문해 연수생 대상 익산 여행을 요청했다.

이번 유치원 교사 익산 답사는 그간 노력의 성과로 이뤄졌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백제문화탐방'을 주제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관광지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먼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방문해 백제 시대의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이어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첫발을 내디딘 나바위 성지를 찾아 삼국시대부터 근현대 종교 역사를 압축해 만날 수 있는 익산만의 특별한 탐방을 경험했다.

특히 이날 답사에는 백제 왕도 익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설명이 더해져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수가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랑스러운 익산시 백제문화유산을 유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보건소,적정체중 관리 교실 참여자 모집

익산시 보건소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예방과 적정체중 관리를 위해 3기 비만 여성 적정체중관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정체중관리 교실은 다음달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익산시 보건소 4층 신체 활동실에서 주 5회 이뤄진다.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개인 특성에 맞춰 운동·식사 지도를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19~59세 여성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는 전화(063-859-4913, 4915) 상담 후 보건소를 방문해 기초 체력과 체성분,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063-859-4913, 491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품질 기업 맞춤형 쌀 품질 관리 '박차'

익산시는 13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오전·오후 2회에 걸쳐 기업 맞춤형 고품질 쌀 원료곡 선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69개 생산단지 대표자와 수매 경영체(농협, RPC)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품질(포장)심사 계획을 공유하고 심사 항목 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적기 방제 등 원료곡 품질 관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시는 올해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로 씨제이(CJ) 햇반 2500㏊를 비롯해 총 4350㏊를 조성했으며, 오는 29일부터 8주간 전 필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 경영체 관계자, 단지대표, 민간심사위원으로 이뤄진 포장심사반을 구성하고 △이품종(이형주 포함) △도복 △잡초 △병해충 △작황 △단백질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엄격한 품질검사로 선별된 원료곡은 씨제이(CJ) 햇반과 하림 즉석밥, 본아이에프(본죽, 본도시락), 농협식품, 학교급식 등에 공급된다. 올해도 약 4만 톤 이상 공급돼 68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